

조선 역대 왕의 피부병에 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변석미 · 탁명림 · 강나루 · 윤화정 · 고우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A study on Kings' skin diseases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Seok-Mi Byun · Myoung-Rim Tark · Na-Ru Kang · Hwa-jung Yoon · Woo-Shin Ko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ings' skin diseases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Methods : We conducted a study on the text paragraphs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containing kings' skin diseases.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ccessive kings in the Choson Dynasty are total 27, and 19 kings of them are suffered from skin disease.
2. The most frequent skin disease that the kings of the Choson Dynasty suffered from is Abscess.
3.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King Moonjong, King Hyeonjong, King Sukjong mainly suffered from skin disease.
4.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King Moonjong, King Sungjong, King Hyojong, King Chungjo, King Soonjo died of skin disease.

Conclusion : We expect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past state of oriental medicine, re-evaluating present state, and singposting future state.

Key words : Skin Disease,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bscess.

I. 緒 論

영국의 역사철학자 E.H.Carr는 “현재는 과거와 의 대화인 것이다.”라 하였다¹⁾.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연구하는 이유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醫史學은 의학과 의료기술 발전의 자취 그리고 의학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정신적 환경과 각 시대 상호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한의학연구를 통하여 당시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고, 현재의 한의학을 다시 평가하여 미래의 한의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2,3)}.

조선시대(1392-1910)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명의 역대 왕이 승계하면서 518년간 지속되었다.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기타 모든 문화를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일반역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의학사의 기초연구자료로도 매우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값진 유산이다⁴⁾.

조선의 왕실 문화에서 우리문화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듯이, 의학사 연구에서 조선 왕들의 질병 치료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왕들의 질병치료에는 그 시대의 가장 우수한 의료조건 하에서 어의들의 논의를 거친 치료방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역대 왕의 질병치료 기록에서 당대 의학사조의 전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뛰어난 의학적 내용들이 왕의 질병치료에 적용되었던 것이다⁵⁾.

조선 왕들의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의료를 이해하려는 기존의 연구로 김은 조선 전기 왕들의 질병에 대해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정리하였고⁶⁾, 이외에도 효종⁷⁾과 소현세자⁸⁾의 사인에 관해서 연구하였으며, 조선 왕들이 질병치료로서 온천욕을 했던 기록을 조사하였다⁹⁾. 또 윤

⁴⁾은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조선 중기 왕들의 질병과 사인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김¹⁰⁾은 중종의 병상일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명종, 선조, 광해군³⁾, 현종, 숙종, 경종, 영조¹¹⁾의 질병에 대해 개인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임금 개인의 질병을 연구한 것이나 하나의 질병군을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화병¹²⁾’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피부병은 조선 왕들의 질병 및 사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에 저자는《朝鮮王朝實錄》을 통하여 조선시대 임금들의 피부병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 조선 역대 왕의 피부병 -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의 모든 문화를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일반역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의학사의 기초연구자료로도 매우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太祖부터 哲宗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실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⁴⁾ 역대 27위의 왕들에 대한 수명과 재위기간을 열거하면 표1과 같다.

피부병에 속하는 것은 癰疽, 濕瘡 즉, 腫氣나 부스럼과 단순히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도 있다. 한의학서 가운데에도 많은 부분 腫氣나 부스럼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부 질환에 관련한 전문의서가 별도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腫氣나 부스럼을 포함한 피부질환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았었고 치료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⁹⁾.

腫氣를 포함한 피부병은 역대 임금들의 고질적인 병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흥에 의하면¹³⁾ 조선 역대 왕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가 腫氣에 뒤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실록 초기 왕들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다’ 로만 표현되어 있어 질병의 상세한 내용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질병 기록 중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방법 -

- ① 《朝鮮王朝實錄》에서 왕의 질병 증상 중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 즉 腫氣, 痔症, 痒處, 瘡濕, 瘡, 面瘡, 赤暈稍癢, 發疹, 癩疹, 偷鍼瘡, 核患, 痘症, 痰核, 紅疹, 水痘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 ② 본문 내용 중 《朝鮮王朝實錄》 원문의 국문표기는 공식사이트인 <http://sillok.history.go.kr/> 에 의거하였다.
- ③ 본문 내용 중 한자표식은 한글과 발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고, 그 외 해석한 내용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다.
- ④ 《朝鮮王朝實錄》의 국문내용 중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은 “...” 로 표시하여 생략하였다.

1. 태종 (太宗, 1367-1422)

태종의 질병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은 약 35회에 걸쳐 나오며, 평소 風疾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腫氣, 痢疾, 肩臂痛, 팔이 시리고 아픈 것, 목이 빠근한 증상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태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기술해 놓지 않아 어떠한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⁶⁾. 그 중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종실록 권4, 2년 9월 19일 己亥

장령(掌令) 이담(李擔)·헌납(獻納) 허지(許遲) 등을 불러 친히 묻기를, “내가 일찍이 腫氣가 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열 번이나 났다. 이에 의자(醫者)에게 물었더니, 의자가 말하기를, ‘탕(湯)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온천에 가려고 한 것이다.” ...

태종실록 권16, 8년 7월 17일 癸亥

해수(海壽)·한첨목아(韓帖木兒)·기원(奇原)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종기(腫氣)가 났다고 사양하고 접대(接待)하지 않았다.

Table 1. Lifespan and Reign of Choson Kings⁶⁾

	수명	재위기간		수명	재위기간
1. 太祖	74	7년 1개월	15. 光海君	67	15년 1개월
2. 定宗	63	2년 2개월	16. 仁祖	55	26년 2개월
3. 太宗	56	16년 8개월	17. 孝宗	41	9년 11개월
4. 世宗	54	32년 6개월	18. 顯宗	34	15년 3개월
5. 文宗	39	2년 2개월	19. 肅宗	60	45년 9개월
6. 端宗	17	3년	20. 景宗	37	4년 2개월
7. 世祖	52	13년 2개월	21. 英祖	83	51년 6개월
8. 睿宗	20	1년 2개월	22. 正祖	49	24년 3개월
9. 成宗	38	25년	23. 純祖	45	34년 4개월
10. 燕山君	31	11년 8개월	24. 憲宗	23	14년 6개월
11. 中宗	57	38년 2개월	25. 哲宗	33	14년 6개월
12. 仁宗	31	7개월	26. 高宗	68	43년 7개월
13. 明宗	34	21년 11개월	27. 純宗	53	3년 1개월
14. 宣祖	57	40년 6개월	평균	47	19년 2개월

세종실록 권4, 1년 5월 2일 丙午

임금의 행차가 기탄(岐灘)으로 돌아오니, 상왕의 목 위에 난 작은 종기가 목욕할 때 중풍(中風)으로 병환이 더한 때문이었다.

2. 세종 (世宗, 1397-1450)

세종의 질병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은 약 100회에 걸쳐 나오며, 젊은 시절에는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고, 당시 왕들이 즐겼던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 비만한 체구였음이 실록에 나타나 있다⁹⁾. 평소 風疾, 消渴, 眼疾, 淋疾 등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며 간혹 腫氣를 앓기도 하였다. 그 중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종실록 권26, 6년 5월 9일 癸未

지신사 곽존중(郭存中)에게 명하여 이조 판서 허조·예조 참관 이명덕 등을 불러 전지하기를, “근일에 내 왼쪽 겨드랑이 밑에 작은 종기(腫氣)가 나서, 비록 아프지는 않으나 재계(齋戒)하는 데 전심할 수 없도다...”

세종실록 권66, 16년 11월 11일 甲申

먼저 도승지 안승선(安崇善)을 시켜 세 사신에게 가서 대신 전송하는 사유를 말하기를, “...전하께서 근간에 요통(腰痛)으로 앓으시고, 또 어깨와 등에 종기가 나셨는데, 요통은 지금 조금 나셨으나, 종기는 감세가 없어서, 구부렀다 펴셨다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3. 문종 (文宗, 1414-1452)

문종의 질병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은 약 36회에 걸쳐 나오며, 문종의 질병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腫氣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질병이었다. 때문에 腫氣 치료를 위하여 膏藥이나

거머리를 붙이거나 十宣散, 豆湯 등의 약물을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올리거나 죄수를 사면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腫氣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문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종실록 권126, 31년 11월 15일 辛卯

임금이 우부승지이계전(李季甸)에게 이르기를, “...지금 동궁의 종기(腫)는 의원(醫員)의 착오로 썩음이 익지 못한 때문인데도, 이를 물은즉, ‘해(害)가 없습니다.’ 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배표(拜表)하고 조참(朝參)까지 받게 하였다니, 걸음걸이에 몸이 피로하여 종기의 증세가 다시 성하게 한 것이었다. 또 실지로서 아뢰지 않아서 갑자기 중함이 이르게 하여 위태로운 증세가 심히 많았으니, 의원의 착오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어 생명을 하늘에 맡겼더니, 다행하게도 이제 종기의 근[腫核]이 비로소 빠져 나와, 병세는 의심할 것이 없게 되어, 한 나라[一國]의 경사가 이에 지날 수가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127, 32년 1월 26일 壬寅

...“세자가 작년 10월 12일에 등 위에 종기가 났는데, 길이가 한 자 가량 되고 넓이가 5, 6치[寸]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굵아 터졌는데, 창근(瘡根)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여섯 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 6치[寸]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행보(行步)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醫方)에 꺼리는 바로서 생사(生死)에 관계되므로, 역시 세자로 하여금 조서를 맞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127, 32년 윤1월 20일 乙丑

대군(大君)이 자세하게 세자가 세 곳이나 종치가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을 말하니...

문종실록 권1, 즉위년 2월 19일 癸巳

영의정 하연(河演)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저하(邸下)께서 종기(腫瘡)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진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큰 일[喪事]을 당하셨으니, 더욱 자애(自愛)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죽을 조금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문종실록 권1, 즉위년 2월 20일 甲午

...“저하(邸下)께서 전일에 난 종기(腫氣)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또 종기가 발생했으니, 신(臣) 등은 몹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의서(醫書)에, ‘대개 창구(瘡口)가 아물어질 즈음에는 오히려 서서 걸어 다니는 것도 꺼린다.’고 했습니다...”

문종실록 권1, 즉위년 2월 24일 戊戌

...임금이 말하기를, “내 허리 사이의 종기(腫氣)는 점차로 나아가고 무릎 위의 종기는 지금은 아픈 증세는 없는데, 여차(廬次)에 물러가 거처하는 일은 나는 차마 할 수가 없다.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1, 즉위년 2월 26일 庚子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나의 종기(腫氣)가 지금은 이미 나아가니 조식(朝夕)의 상식(上食)에는 내가 나가서 참여하고자 한다.” 하니,...

문종실록 권1, 즉위년 3월 17일 辛酉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빈전(殯殿)에 나아가려고 하였지마는 종기(腫氣)가 연달아 발생한 까닭으로 그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모두 조금 나아졌으니 내가 마땅히 나가야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1, 즉위년 3월 23일 丁卯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내외(內醫)의 말을 듣건대, ‘전일의 종기(腫氣)에 창구(瘡口)가 아물

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오르내리면서 행례(行禮)할 수가 없다.’ 하니, 청컨대 나오시지 말고 조리(調理)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기(腫氣)가 난 곳은 이미 나왔으니, 마땅히 의원(醫員)에게 물어서 잘 처리하겠다.” 하고,...

문종실록 권6, 1년 2월 27일 丙申

임금이 몸이 편치 않아 의정부에서 사인(舍人)을 시켜 문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치질(痔) 기운이 조금 있었으나, 이제는 조금 나왔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9, 1년 8월 8일 癸酉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전에 앓던 안질(眼疾)은 이미 나왔으나, 허리 밑에 작은 종기(腫)가 생겨 약간 편치 않으니, 명일에 있을 정사는 또 정지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권9, 1년 8월 11일 丙子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종기가 혹 굵아서 터질는지 혹 저절로 없어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10, 1년 11월 22일 丙辰

임금이 내일 정사(政事)를 보고자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상체(上體)가 비록 회복(恢復)하셨다고 하더라도 종기에서 고름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였다.

문종실록 권13, 2년 4월 24일 戊子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성상의 종기(腫氣)가 난 곳은 신(臣) 등처럼 보통으로 분주(奔走)하는 사람 같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는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갇숙이 거처하여 기동(起動)하는 일이 드물게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 병도 또한 염려가 될 만합니다...”

문종실록 권13, 2년 5월 3일 乙未

…임금이 이내 말하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이 서울에 도착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나의 종기(腫氣)난 곳이 비록 긴급(緊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화농(化膿)될 형세가 있을 듯하다. 회복되기를 기다려 그 후에 사신을 본다면 시일이 장차 너무 오래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

문종실록 권13, 2년 5월 5일 丁酉

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가 내전(內殿)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腫氣)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濃汁)이 흘러 나왔으므로, 두탕(豆湯)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습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문종실록 권13, 2년 5월 8일 庚子

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가 내전(內殿)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腫氣)가 난 곳은 농즙(濃汁)이 흘러 나와서 지침(紙針)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찌른 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과 같습니다.” 하니, 문안(問安)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물러갔다.

문종실록 권13, 2년 5월 12일 甲辰

허후(許訥)가 아뢰기를, “큰 종기(腫氣)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 회복이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기 난 곳은 날로 차도(差度)가 있으니 신(臣) 등은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습니다. 다시 날로 조심을 더하시고 움직이거나 노고하지 마시어서 임금의 몸을 보전(保全)하소서. 또 듣건대, 전하(殿下)께서 조금 갈증(渴症)이 나면 냉수(冷水)를 좋아하신다 하니, 무릇 종기(腫氣)가 갈증(渴症)을 당기는 것은 이것이 그 보통의 증상(症狀)입니다. 갈증(渴症)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 속을 덥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까닭으로 창종(瘡腫)이 많다.’고 하니, 이 말이 깊이 이치가 있습니다. 무릇 혈기(血氣)가 운행(運行)할 적에, 몸이 더우면 운행하고 몸이 차(冷)하면 중지되어 종기(腫氣)가 발생하게 되니, 평상시에도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은 마땅히 기(忌)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종기(腫氣)를 앓고 있는 때에는 더욱 마땅히 아주 기(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건대, 십선산(十宣散)을 조제(調劑)하여 올렸다고 하는데, 이 약은 모름지기 술로써 타서 먹어야 하고 많이 먹어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13, 2년 5월 14일 丙午

유시(酉時)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서 흥(薨)하시니, 춘추(春秋)가 39세이셨다. …종기(腫氣)의 화종(化腫)이 터지므로 전순의(全循義) 등이 은침(銀針)으로써 종기(腫氣)를 따서 농즙(濃汁)을 두서니 흠뻑 짜내니, 통증(痛症)이 조금 그쳤으므로, 밖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3,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

4. 세조 (世祖, 1417-1468)

세조의 질병에 관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 약 43회에 걸쳐 나오나 피부병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민간에서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 일부에서는 그 피부병이 癩病(문둥병)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는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김에 따르면⁷⁾, 세조의 온천욕에 대한 기록 중 “風濕病” 때문이란 병명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세조자신이 피부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역대 임금이 온천욕을 시행한 병의 원인 가운데 피부질환이 많았었고, 또 이후 1984년에 강원도 오대산 상

원사의 동자상 복장유물 가운데 세조의 것으로 판정된 피 문은 속적삼이 발견되었는데, 피고름의 흔적으로 당시 세조가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예종 (睿宗, 1450-1469)

예종은 2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단종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단명한 군왕이었다. 《朝鮮王朝實錄》에는 예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이 전부 5회에 불과하며,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으나 그에 대한 원인을 실록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예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종실록 권3, 1년 1월 6일 辛酉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발에 조금 헌데(瘡處)가 있었는데, 추위가 심해지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좀 나아졌다.” 하고, 곧 술을 먹이게 하였다.

예종실록 권8, 1년 11월 18일 戊戌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족질(足疾)로 오랫동안 안 정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6. 성종 (成宗, 1457-1494)

성종의 질병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은 약 73회에 걸쳐 나오며, 그 중 다수가 感氣이다. 그 외에도 書證, 齒痛, 淋疾, 頭痛, 腰痛, 喘證, 手顫症, 消渴症, 積聚 등 많은 병으로 고통 받고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⁶⁾. 성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종실록 권74, 7년 12월 6일 乙亥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 몸에 종기(腫氣)가 난 곳이 있어서 한계희(韓繼禧)·임원준

(任元濬)·조지경(曹智敬) 등에게 보이하고자 하나, 임원준은 내 스승인데 종기를 치료시키는 것이 불가(不可)하지 않겠는가?” 하니,…”

성종실록 권155, 14년 6월 25일 丙戌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 서증(暑證)을 앓고 있고 또 작은 종기가 났으나, 졸곡(卒哭)의 대제(大祭)는 몸소 행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성종실록 권164, 15년 3월 27일 甲寅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다만 전에 앓던 창구(瘡口)가 지금도 아물지 않아 목욕(沐浴)하고 재결(齋潔)하지 못하니, 그 친행(親行)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라.”하였다.

성종실록 권225, 20년 2월 12일 庚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사헌부(司憲府)의 말에 따라 경연(經筵)에 나가고 조회를 보려고 하였으나, 다만 치질(痔疾)과 이질(痢疾)이 함께 일어나서 실행하지 못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81, 24년 8월 14일 丙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입술 위에 종기(瘡)가 터져서 피가 나왔는데 오는 달 각 제사의 축문(祝文)에 착압(着押)하기가 미안하니, 우선 대압(代押)하게 하라.”하였다.

성종실록 권282, 24년 9월 12일 癸卯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나의 입술 위에 난 부스럼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능(陵)에 참배할 날은 겨우 6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할 수 없이 다른 날로 고쳐서 택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82, 24년 9월 17일 戊申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하물며 성상의 옥체(玉體)의 입술의 부스럼 난 곳이 여전히 아직

낮지 않았으니, 추위를 무릅쓰고 다니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강무를 정지하소서.”하니,...

성종실록 권297, 25년 12월 20일 乙亥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윤은로(尹殷老) 등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배꼽 밑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난밤부터 조금씩 아프고 빛깔도 조금 붉다.” 하였는데,...

성종실록 권297, 25년 12월 23일 戊寅

진시(辰時)에 송흙이 안에 들어가서 진후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상의 몸이 몹시 여위셨고, 맥도(脈度)가 부삭(浮數)하여 어제는 육지(六指)였는데, 오늘은 칠지(七指)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위황(痿黃)하고 허리 밑에 적취(積聚)가 있고, 내쉬는 숨(呼吸)은 많고 들이쉬는 숨은 적으며, 입술이 또 건조(乾燥)하십니다. 성상께서 큰 소리로 약을 물으시므로, 아뢰기를,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오미자탕(五味子湯)·청심원(淸心元) 등의 약은 청량(淸涼)한 재료가 들어 있어서 갈증(渴證)을 그치게 할 수 있으니, 청컨대 이를 진어(進御)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상의 몸을 보건대 억지로 참으시면서 앉으신 듯하기 때문에 마침내 물러나왔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97, 25년 12월 24일 己卯

송흙 등이 들어가 진찰하고 나와서 전명춘이 말하기를, “배꼽 밑에 적취(積聚)는 참으로 종기인데, 마땅히 종기를 다스리는 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오시(午時) 에 임금이 대조전(大造殿)에서 흥(薨)하였는데, 춘추(春秋)는 38세이다.

7. 연산군 (燕山君, 1476-1506)

연산군은 반정(反正)으로 폐위되었으므로 묘호(廟號)가 없고, 그 실록도 노산군(魯山君: 단종)·광

해군(光海君)의 예와 같이 일기라고 칭하였으나, 체제나 내용 면에서 다른 실록과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반정의 주도 세력인 승리자의 기록이고 사초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실록으로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⁴⁾. 연산군은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경연을 취소했는데, 정사를 소홀히 했던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건강이 많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⁵⁾. 평소 고질병은 없었으며 腫氣, 煩熱症 등의 질병이 있었고, 중증반정으로 폐출 후 疫疾에 걸려 사망하였다. 연산군의 피부병은 다음과 같다.

성종실록 권281, 24년 8월 3일 乙丑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세자(世子)의 얼굴에 종기(瘡)가 있는데 오래 낫지 아니한다...”

성종실록 권293, 25년 8월 12일 戊辰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윤필상(尹弼商)과 윤은로(尹殷老)가 와서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얼굴에 난 종기가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 우리 나라의 의원(醫員)은 문견(聞見)이 넓지 못하여 약(藥)을 쓰지만, 효험(效驗)이 없습니다...” 하니,...

연산군일기 권2, 1년 1월 20일 甲辰

왕이 전부터 면창(面瘡)이 나서 의관(醫官)으로 하여금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하여 오게 하였더니, 옹황 해독산(雄黃解毒散)과 선응고(善應膏)를 얻어 왔다.

연산군일기 권28, 3년 10월 22일 庚寅

전교하기를, “내가 정사를 보려 했는데, 마침 눈썹 위에 붉은 무리(赤羣)가 솟아 조금 가렵기 때문에 부득이 정지하노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4일 乙亥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근일에 일을 보려고 하

지만, 가려움증으로 피로울 뿐만 아니라 설사가 잦아 지금 약을 먹으므로 나가지 못한다.” 하였다.

8. 중종 (中宗, 1488-1544)

중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병을 앓은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腫氣가 그의 고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 외에도 感氣, 齒齲痛, 肩臂痛, 疝症, 心熱症 등으로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으며⁵⁾, 이후 소화기계 세균성 감염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¹³⁾. 중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종실록 권73, 27년 10월 22일 丙申

내의원 제조 장순손과 김안로 등이 아뢰기를, “이질가지(伊叱假脂)는 함경도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이것이 향약(鄕藥)이긴 하나 종기를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라서, 그 약을 사용한 자는 매양 신효(神效)을 보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대로 진상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73, 27년 10월 24일 戊戌

전교하기를, “중기의 증세는 별로 차도가 없으나, 그렇다고 극심한 아픔도 없다. 다만 해수(咳嗽)가 매우 심하여서 기침이 나올 때의 흔들림으로 하여 중기의 아픔이 더욱 가중된다. 그러니 먼저 해수를 치료하면 이 아픈 곳도 나오리라고 생각된다. 지금 또 해수가 바야흐로 심해져서 온몸에 땀이 나 일어나 앓을 수조차 없으니, 아직은 의원을 인견(引見)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73, 27년 10월 30일 甲辰

전교하기를, “내 병은 다른 증세가 아니고 다만 풍한(風寒)으로 인하여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중기가 나서 찌르는 듯 아픈 증세이므로 하루 이틀에 즉시 나올 병이 아니다. 문안할 필요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73, 27년 11월 6일 庚戌

의정부·육조·승정원·홍문관이 문안하니, 전교하였다. “어제 침으로 터뜨려 고름이 많이 나오고 나서는 내 심기가 편안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73, 28년 1월 9일 壬子

전교하기를, “내 중기 증세는 당초 침으로 터뜨렸을 때 침구멍이 넓지 않아서 나쁜 피가 다 빠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고름이 나왔다. 그러나 멍울이 생긴 곳은 아직 굵지 않았으므로 요사이 태일고(太一膏)·호박고(琥珀膏)·구고고(救苦膏)를 계속 붙이자 멍울 섰던 곳에 고름이 다시 연이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곳이 새로이 굵는 것은 아니다...” 하니,

순손(順孫) 등과 박세거(朴世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기가 났던 곳은 이미 죽은 살이 되었으니 다시 응어리가 박힐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진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살갗이 두꺼운 곳에 군데군데 응어리진 것이 아납니까? 의녀(醫女)에게 진찰시켜 약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권73, 28년 2월 6일 己卯

상이 “써 올린 말을 보니 지당하다. 요사이 계속하여 약을 먹었으나 아직 낫지 않고 나쁜 진물이 나오는 중에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기에 거머리로 시험해 보았더니 딱딱하고 도독해진 곳이 삭아서 편편해졌다. 그러나 고름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피가 생기므로, 거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면 오히려 새 피에 해로울 듯하여 벌써 거머리 사용을 정지하고 태일고(太一膏)를 붙였다. 아직 창(瘡)의 주위에 남은 독이 뭉쳐서 편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많이 삭았지만 고름이 아직 그치지 않으니, 삼나무 진액을 쓰고 십선산도 먹어야겠다. 처음부터 복용할 때는 번번이 술에 타서 먹었다.” 하였다.

증중실록 권73, 28년 2월 12일 乙酉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여러달 몸이 아팠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으므로 의녀와 약방을 내보냈고, 또 대신들이 진하할 것을 청하므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창구(瘡口)가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여독(餘毒)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한동안은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증중실록 권73, 28년 2월 20일 癸巳

전교하였다. “아직 봉합되지 않은 창구의 큰 증상은 아주 나았으나, 여독(餘毒)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 주위의 빨갛게 부은 곳이 다 붉아서 터져야 하므로 나쁜 진물이 조금씩 늘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봉합되지 않고 있다. 혈종(血腫)은 아마도 새로 끓는 것 같다. 이 또한 여독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증세는 아주 나았다. 요사이 달리 쓸 만한 약이 없으므로 약방에 하문하지 않았다. 진물이 다 나오면 며칠 안 되어 봉합될 것이다.”

증중실록 권73, 28년 2월 29일 壬寅

전교하였다. “다른 건강은 괜찮으나 요사이 진물이 가끔 나오고 뭍은 물도 나온다. 전에 의녀가 뭍은 물이 나온 연후에야 창구(瘡口)가 봉합된다고 하였으니, 뭍은 물이 다 나오면 창구가 봉합될 것이다.”

증정실록 권73, 28년 3월 9일 壬子

전교하기를, “지금은 별다른 증세가 없고 단지 진한 고름은 나오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창구가 아물지도 않고 누런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박세거에게 말한 것이다. 창구가 아물지 않고 누런 물이 계속 나오는데, 고약을 부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증중실록 권73, 28년 3월 18일 辛酉

전교하기를, “나의 건강은 보통 때와 같아서 별다른 증세는 없고 다만 창구가 아물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지난번까지는 뭍으면서 누르스름한 물이 자주 나오더니, 이제는 가끔 나오고 있다.” 하였다.

9. 인종 (仁宗, 1515-1545)

인종은 재위기간이 8개월로 역대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짧으며, 즉위한 다음 해인 31세에 사망했다. 실록에서는 인종의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는 않지만⁴⁾,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아버지 중종의 喪中에 너무 슬퍼한 탓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 그러나 야사에는 계모 문정왕후가 준 찹쌀떡을 먹고 죽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인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중실록 권73, 28년 1월 19일 壬戌

전교하였다. “세자에게 발진(發疹)기운이 있으니, 속히 하종해(河宗海)에게 진찰하게 하라.”

10. 광해군 (光海君, 1575-1641)

광해군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본래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었고⁶⁾, 특징적인 고질병은 眼疾이었다. 그 외에도 火病, 感氣, 齒齲痛, 腫氣 등으로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폐위된 이후 유배 생활을 하다가 老患으로 自然死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⁷⁾. 광해군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해군일기 권185, 15년 1월 22일 癸丑

약방이 문안드리자, 답하기를, “나의 병은 화병인데 어찌 쉽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종기의 증세는 점점 덜해지고 있지만 두통은 늘 그러하다.” 하였다.

광해군일기 권186, 15년 2월 19일 己卯

약방이 문안하니, 답하기를, “...대체로 나의 증세는 화병이므로 눈을 감고 조용히 조습한 뒤에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광해군일기 권187, 15년 3월 10일 更子

약방이 아뢰었다. “지난 연초에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성상의 안후가 편찮으신데다 안면의 종기가 날로 심중하였습니다...”

11. 인조 (仁祖, 1595-1649)

29세 반정을 통해 즉위한 인조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편이었으나⁹⁾, 치세기간 동안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인조 자신의 의심하는 성격으로 勞心焦思로 인한 병이 생겨 上熱하는 증상이 자주 있었다. 그 외에도 感氣, 瘡疾, 脹滿, 憂鬱症 등으로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 흥에 따르면¹³⁾ 원인 미상의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인조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조실록 권50, 27년 5월 7일 乙丑

상이 미시(未時)에 한기(寒氣)가 조금 있고 신시(申時)에 두드러기가 크게 나고 유시(酉時)에 한기가 조금 풀렸다. 의관들이 다 말하기를, “오늘은 상의 증세가 갑자기 차도가 있으니, 학질 증세가 조금 있으나 곧 그칠 것이다.” 하니, 이 때문에 근밀한 신하까지도 마침내 위독하게 되는 것을 몰랐다.

12. 효종 (孝宗, 1619-1659)

효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초기에는 질병의 이름은 물론이고 증세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무슨 병을 앓았는지 추론하기 어려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기간이 종종 있

었다. 그러나 마지막 재위기간인 효종 10년의 기록들은 보다 구체적인 병세를 기록하고 있어 고질적인 질환이 腫氣였으며 사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에 따르면⁷⁾ 腫氣가 원인이 된 패혈증 악화가 인체 장기의 기능저하증세인 多臟器不全症으로 진행되었고 출혈증은 그에 수반하는 하나의 증세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하였다. 효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종실록 권1, 즉위년 6월 4일 癸巳 (효종9년)

...상이 말을 만들어 비답하였다. “...지나해 파종(破腫) 때도 가귀가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었다. 그것은 선왕께서 통촉하신 바로서 그가 침을 잘 놓는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날도 그로 하여금 침을 잡게 한 것은 원래 그래서였던 것이다. 의관들이 다 물러간 후 내가 곁에서 머리 부위를 바라보고 심신이 착잡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더니, 선왕께서 돌아보시고 이르기를, ‘파종을 한 것은 살기 위함인데 왜 우느냐?’ 하셨다...”

효종실록 권21, 10년 4월 27일 丁巳

상이 머리 위에 작은 종기를 앓고 있었으므로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찰한 다음 약을 의논하여 올렸다. ...그리고 전정(殿庭)에 나아가 서서 직접 비를 빌다가 상처가 더 악화되어 종기의 증세가 점차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야 비로소 약방에 하교한 것이다.

효종실록 권21, 10년 4월 28일 戊午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였는데,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효종실록 권21, 10년 4월 30일 庚申

이때 상의 종기 증후가 점점 위독하여지자...

효종실록 권21, 10년 5월 1일 辛酉

약방이 문안하니, 답하였다. “종기의 증후가 날로 심해가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의원(醫員)들은 그저 심상한 처방만 일삼고 있는데 경들은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니, 부기(浮氣)가 점점 심하였다. 의관(醫官) 유후성(柳後聖)이 아뢰기를, “독기(毒氣)가 안포(眼胞)에 모여 있으니 의당 산침(散鍼)을 놓아서 배설시켜야 합니다.”

하니, 따랐다.

효종실록 권21, 10년 5월 3일 癸亥

상의 병이 위독하여 편전(便殿)에 나아갈 수 없었다. 약방이 대조전(大造殿)에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산침을 맞았다. 저녁에 약방이 또 들어와 진찰하였다. 상이 입시한 의관들에게 진맥해 보라고 명한 뒤에 인하여 종기 증후의 경중을 하문하였다. 의관들이 감히 분명히 말하지 못하니,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효종실록 권21, 10년 5월 4일 甲子

상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고 명하고 이어 제조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라고 하니, 도제조 원두표가 먼저 전내(殿內)로 들어가고 제조 홍명하, 도승지 조형이 뒤따라 곧바로 들어갔다. 상이 침을 맞고 나서 침구멍으로 피가 나오니 상이 이르기를,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하였다.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솟아 나왔는데 이는 침이 혈락(血絡)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제조 이하에게 물러나가라고 명하고 나서 빨리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바르게 하였는데도 피가 그치지 않으니, 제조와 의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의 증후가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으니, 약방에서 청심원(淸心元)과 독삼탕(獨參湯)을 올렸다. 백관들은 놀라서 황급하게 모두 합문(閤門) 밖에 모였는데, 이윽고 상이 삼공(三

公)과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약방 제조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승지·사관(史官)과 제신(諸臣)들도 뒤따라 들어가 어상(御床) 아래 부복하였는데, 상은 이미 승하하였고 왕세자가 영외(淸外)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

13. 현종 (顯宗, 1641-1674)

현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즉위년인 19세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질병은 眼疾과 腫氣이고, 이 밖에 濕瘡, 核患, 脾胃虛損, 泄瀉, 喘息, 腹痛 등이 나타난다. 20대에는 거의 매년 眼疾과 腫氣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30대에는 腫氣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¹¹⁾. 사인으로는 흉에 따르면¹³⁾ 전염병으로 분류하였지만 이에 따르면¹¹⁾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한 종창에서 기인한 패혈증과 위장관감염 합병증으로 추정하였다. 현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종실록 권3, 1년 6월 9일 壬辰

상의 왼발 엄지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으로 부스럼이 생겨 약방 제조가 의관들을 거느리고 입진하였는데, 상이 침을 맞았다.

현종실록 권3, 1년 6월 25일 戊申

상의 머리 오른쪽 부분에 조그마한 종기가 나 편전(便殿)에서 뜸을 댔는데, 약방의 제조 등이 합문(閤門) 밖에 엎드려 있었다.

현종실록 권3, 1년 6월 30일 癸丑

상의 발 부위에 가려움증이 심하여 의관 윤후익(尹後益)이 산침(散鍼)을 놓을 것을 청했는데, 약방이 제조가 입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아뢰자 침을 이미 맞았다고 답하였다.

현종실록 권3, 1년 7월 6일 己未

상이 의관을 명하여 입진하게 하였다. 이때 상의 머리와 얼굴의 열기가 점점 가시었고 안질과 발 부위의 부스럼도 날이 갈수록 차도가 있었다.

현종실록 권3, 1년 7월 21일 甲戌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앞의 합문을 닫고 의관만 입진하도록 하고 왼편 발등의 부스럼이 난 곳에 산침을 맞았다

현종실록 권3, 1년 7월 23일 丙子

상이 이르기를, “얼굴에 부스럼이 아직도 많아 머리 빗고 세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니,...

현종실록 권4, 2년 4월 25일 甲辰

궐문을 닫으려 할 즈음에 상이 작은 부스럼 때문에 급히 의관(醫官)을 불러 뜸을 댔다.

현종실록 권4, 2년 5월 21일 己巳

...이는 대체로 상의 창환(瘡患)이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종실록 권4, 2년 윤7월 17일 甲午

상의 안포(眼胞)에 투침창(偷鍼瘡)(눈다래끼)이 생겨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현종실록 권5, 3년 8월 13일 癸丑

...제조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옥체에 습창(濕瘡)이 또 발생했다 하는데, 옥체를 수고스럽게 하시면 더 상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현종실록 권6, 4년 5월 22일 己丑

상이 뜸을 댔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의관이 말하기를 ‘옥체의 습창(濕瘡)도 중한데 이 증세를 다

스리려면 온천물이 제일이다.’고 하니, 그 물을 가져 와서 씻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현종실록 권9, 5년 7월 10일 己亥

상이 목뒤에 조그마한 부스럼이 나서 양심함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현종실록 권9, 5년 9월 3일 辛卯

영상과 좌상이 상의 핵환(核患)이 완쾌되었다고 종묘에 아뢰는 예를 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현종실록 권10, 6년 3월 14일 庚子

상이 의관을 시켜 약방에 말을 전하기를, “요즘 음 부스럼이 온 몸에 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데, 온천에 목욕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폐가 염려되어 할 생각을 못하였다. 지금 눈병과 부스럼이 한꺼번에 발하여 여러 차례 침을 맞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약은 오래 복용하였으나 효험이 없고 침은 겨우 당장 위급한 것만 치료할 뿐이다. 일찍이 듣건대, 온천이 습열(濕熱)을 배설시키고 또 눈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지금 기회에 가서 목욕하였으면 한다. 여러 의원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현종실록 권10, 6년 3월 15일 辛丑

상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여러 의원들로 하여금 들어와 진맥하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눈동자에 핏발이 서서 침침하여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다가 습창(濕瘡)이 한꺼번에 발하여 온 몸에 퍼져 있다. 대개 습창과 눈병은 모두 습열(濕熱)에서 나온 것으로 온천에서 목욕하면 효험을 볼 수 있다...” 하니,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6일 壬戌

이때에 상이 가슴과 등 그리고 머리 부위에 부

스럼이 났는데, 전날 생긴 응어리도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상태였다. 상이 진찰하러 들어온 의관에게 하고하기를, “지금 습창(濕瘡)이 이미 심하게 번질 조짐이 있는데 앞으로 날씨가 점차로 더워져 눈병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약방(藥房)에 말해 보아라.”하니,...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7일 癸亥

약방이 아뢰기를, “...상의 안질 증세는 전적으로 습열이 오르내린 데에 달려 있는데, 열기가 오르면 안질의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이 점이 매우 걱정됩니다. 침은 많이 맞더라도 일시의 급한 것만을 구제할 뿐이며, 탕제(湯劑)를 쓰게 되면 위의 기운을 먼저 상하게 되며, 환약은 열을 치료하는 데 제일 더디므로 효과를 거두기가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습열을 치료하는 데는 온천만한 것이 없으므로 꼭 제때에 온천의 목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소견을 진달한 것인데 구구한 신의 지나친 염려도 말단에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니, ...

현종실록 권10, 6년 5월 15일 庚子

상이 눈병이 있는 이후로 서책의 글자 획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난 후로 크게 효험을 보아 문서의 작은 글자도 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며 수백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도 구별하였다. 습창은 거의 흩어져서 아물었고 오른쪽 턱밑의 핵환(核患)의 남은 기도 이때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다.

현종실록 권12, 7년 10월 10일 丁巳

상이 다리 부분에 종기가 나서 침을 맞았다.

현종실록 권14, 9년 2월 15일 甲申

상이 침을 맞은 후 약방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상이 핵환(核患)을 앓아 누군가 현삼

주(玄參酒)가 핵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고 권하자, 상이 일렀다. “비록 좋은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입에도 못 대니 어찌겠는가.” 하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8월 15일 乙亥

허적이 나아가 문안드리고 아뢰기를, “상께서 다리가 당기는 증세는 감소된 듯하지만 다른 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의관들이 입진한 뒤에야 침을 놓을 것인지 뜸을 뜸 것인지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감히 입진할 것을 청했습니다. 응어리의 환부는 전보다 덜하십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덜한 듯하다.”하고, 의관들에게 진맥하도록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맥박이 전보다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하고, 우선 삼리혈(三里穴)의 절골 부위에 뜸을 뜨기로 하였다. 이어 대신과 비국의 재신(宰臣)들을 불러 들었다.

현종실록 권17, 10년 8월 21일 辛巳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뜸을 댔다. 허적이 나아가 상의 안부를 묻고 의관들로 하여금 응어리의 환부를 차례로 진찰하여 뜸을 뜸 혈을 의논 결정하게 하여, 상이 뜸을 댔다.

현종실록 권17, 10년 8월 23일 癸未

...이때 상의 건강이 한 달이 넘도록 편찮았는데, 턱 아래 좌우에 난 응어리가 점점 커지고 피부가 수척해져 탕약도 잘 드시지 못했으므로 신하들이 걱정하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0월 3일 癸亥

영의정 정태화가 나아가 상의 병세를 물으며 핵환(核患)은 어떠냐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평상시와 같지 못한 것은 음식 먹는 일이다.” 하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1월 16일 乙巳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니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이때 상의 오른쪽 턱 밑 종기가 자리잡은 부분에 고름이 잡힌 지 이미 오래되어 곧 저절로 터져나올 기세였는데, 의관들은 여전히 흑인가 의심하고 있었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1월 17일 丙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종기를 터뜨렸는데, 도제조 이하가 숙직하였다. 이날 상의 종기가 난 부분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약방에 명하여 침으로 따버릴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였다. ...상의 종기는 크기가 작은 병만하였는데, 여문 부분은 색이 몹시 붉었으며 상의 신색도 매우 좋지 못했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온 머리가 지끈거리는데다가 또 정수리 부위가 가끔 통증이 오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것인가?” 하였다. ...이때 상의 핵환(核患)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여러 의원들이 증세를 파악해내지 못했다. ...침을 대자 고름이 거의 한 되 가량 나왔다. 상의 낮빛이 비로소 온화해지며 시원하다고 하자, 도제조 이하가 기뻐 자신들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1월 19일 戊申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가 침을 맞았다. 결분(缺盆) 근처에 종기가 자리잡아 끓었기 때문에 침으로 땀 것이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1월 25일 甲寅

상이 집상전에 나아가 왼쪽 턱 밑 고름이 잡힌 곳을 침으로 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2월 13일 壬申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풍지혈(風池穴) 곁 종기가 난 곳을 침으로 땀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2월 19일 戊寅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오른쪽 결분(缺盆) 위의 결핵(結核) 처에 침으로 고름을 땀다. 이때 상의 핵환(核患)이 곳곳에 고름이 잡혔으나 의관들의 의술이 정통하지 못하고 상이 약을 드시지 못했으므로 끓기를 기다렸다 침으로 땀 뿐이었다.

현종실록 권17, 10년 12월 28일 丁亥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왼쪽의 결핵처(結核處)에 침을 맞았다.

현종실록 권18, 11년 2월 12일 庚午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왼쪽 응어리진 곳에 침을 맞고 고름을 뽑아냈는데...

현종실록 권20, 13년 2월 1일 丁丑

상이 침을 맞았다.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결핵(結核)이 끓었기 때문이다.

현종실록 권21, 14년 4월 15일 甲寅

상의 턱 밑에 몽우리가 생겨 끓았으므로 침을 놓아 고름을 터뜨렸다.

현종실록 권22, 15년 2월 23일 戊午

이때에 상이 오랫동안 편찮았고 뜸질로 인해 난 부스럼도 아물지 않은데다가 여러 날 병시중을 드느라 수라를 전폐하였는데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니, 신하들이 너나없이 걱정하였다.

14. 숙종 (肅宗, 1661-1720)

숙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오랜 재위기간 동안 다양한 질병의 양상을 보인다. 고질병은 心火證, 腫氣였으며, 이 밖에 感氣, 黃疸, 痘疾, 眼疾, 風症, 疝氣 등으로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¹¹⁾. 死因으로는 흉에 따르면¹³⁾ 당

노합병증으로 분류하였지만, 이에 따르면¹¹⁾ 실록의 기록에 당뇨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증세나 병명이 등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죽기 직전의 증상의 증상을 종합하여 肝腎症候群으로 추측하고 있다. 숙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 권4, 1년 10월 23일 丁丑

임금이 침상(寢床) 위에 누웠는데, 얼굴빛[玉色]이 아주 붉고 열이 심하며 여러 군데에 반점(斑點)이 있었다. 저녁 후에는 두통과 번열(煩熱)이 더하고 밤이 깊은 뒤에는 열이 극성(極盛)하였는데, 새벽에 이르러 땀이 나고 조금 나았다.

숙종실록 권4, 1년 10월 24일 戊寅

이때 임금의 열후(熱候)는 이미 물러갔으나, 반점(斑點)이 있기 때문에 허적 등이 두증(痘證)임을 의심하고, 주사(朱砂)를 먹으면 쉽게 투출(透出)할 수 있다 하여 올리기를 청하여 임금이 복용하였다.

숙종실록 권14, 9년 10월 18일 乙卯

임금이 불예(不豫)하였으니, 곧 두질(痘疾, 천연두)이었다.

숙종실록 권14, 9년 10월 20일 丁巳

임금의 환후(患候)가 어제부터 반점(斑點)이 나타났으므로...

숙종실록 권14, 9년 10월 25일 壬戌

임금의 환후(患候)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숙종실록 권14, 9년 10월 28일 乙丑

임금의 환후(患候)가 비로소 수압(收靨, 천연두의 부스럼이 아물어 딱지가 생기는 것)하였다.

숙종실록 권14, 9년 11월 1일 戊辰

임금의 환후(患候)가 크게 회복(回復)되어 비로소 딱지가 떨어졌다

숙종실록 권23, 17년 1월 27일 癸丑

임금이 제중담핵(臍中痰核) 때문에 땀[灸]을 땀다.

숙종실록 권27, 20년 7월 25일 辛卯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 번에 후사(喉司)에서 시사(視事)하기를 품했을 적에 마침 성상께서 부스럼 증세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청(奏請)할 일을 아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대(引對) 때에 마침 증세가 편안해졌다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숙종실록 권29, 21년 9월 20일 己卯

임금의 환후(患候)가 평복(平復)함으로써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사전(赦典)과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였는데, 그 교서(敎書)의 글에 이르기를, “...시원스럽게도 이품과 가려움증이 몸에서 떠나고 드디어 새로운 광명(光明)을 맞게 되니...”하였다.

숙종실록 권42, 31년 9월 24일 乙酉

성체(聖體) 오른 편 둔부 위에 결핵(結核)한 곳이 있었으므로, 약방(藥房)에서 문안하였다.

숙종실록 권42, 31년 9월 29일 庚寅

임금의 종기 환후가 더하므로,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의원(醫員)들을 거느리고 직숙(直宿)하였다

숙종실록 권42, 31년 11월 9일 己巳

약방(藥房)에서 문안하니, 답하기를, “왼쪽 결핵(結核)한 곳의 터뜨린 종기는 오른쪽에 두 차례 침을 맞을 때와 차이가 있으니...”하였다.

숙종실록 권43, 32년 1월 25일 甲申

임금이 장강혈(長強穴) 아래에 종기가 나서 침을 맞았는데, 약방제조(藥房提調) 이하의 관원들이 숙직(宿直)하여 5, 6일을 지난 뒤에야 임금의 환후가 약간 나왔으므로,...

숙종실록 권47, 35년 11월 3일 庚午

임금의 옥후(玉候)가 왼쪽 난문혈(蘭門穴) 밑에 습담(濕痰)이 몰리어 멍울이 생기므로, 혹은 침을 놓고 혹은 뜸을 뜨느라 약원(藥院)이 이날부터는 직숙(直宿)했다.

숙종실록 권47, 35년 12월 10일 丙午

임금이 답하지 않다가, 물러간 뒤에야 하교하기를, “이번의 증세는 본시 가볍지 않은 것인데다가, 더구나 종기 자리가 깊어 터지므로 달포나 지나도록 수라(水刺)를 들기 싫든 나머지에, 이달 초나흘 날에는 중기(中氣)가 갑자기 허해졌다...”

숙종실록 권48, 36년 1월 12일 戊寅

이날 임금이 신기(神氣)가 더욱 불평(不平)하여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 말하기를, “...대개 종기(腫氣)가 깊어 터진 후에는 한결같이 오한(惡寒)과 신열(身熱)이 나는데, 이는 화증(火症)이 분명하다...”하였다.

숙종실록 권50, 37년 7월 17일 甲辰

임금이 왼쪽 귓가에 종기(腫氣)가 깊어서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침(鍼)을 맞았다.

숙종실록 권50, 37년 7월 25일 壬子

임금의 이창(耳瘡)에 붉은 무리(赤暈)가 있고, 또 훈열(熏熱)의 기운이 있으며 고름(膿汁)이 자못 많아서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침(鍼)을 맞았다.

숙종실록 권54, 39년 11월 24일 戊辰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임금의 환후가 한결같았으나, 핵처(核處)에 은근히 아픈 조짐이 있었다.

숙종실록 권54, 39년 12월 10일 癸未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임금의 환후 여러 증세가 똑같았다. 핵처(核處)에 소독(消毒)하는 고약(膏藥)을 붙였다.

숙종실록 권55, 40년 11월 6일 甲辰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종기(腫氣)있는 곳에 침(針)을 맞았고, 약방의 세 제조(提調)가 여러 어의(御醫)를 데리고 직숙하였다.

숙종실록 권55, 40년 11월 9일 丁未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종기 있는 곳에 침을 맞은 뒤 고름이 순하게 나왔다.

15. 경종 (景宗, 1688-1724)

경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병이 많아서 기운이 매우 쇠약했으며 정치적인 혼란으로 심리적이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된 질병은 스트레스성 心火證이었고 이 밖에 腫氣, 胃腸障碍, 天然痘, 紅疫 등으로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¹¹⁾. 死因으로는 흉에 따르면¹³⁾ 전염병으로 분류하였지만, 이에 따르면¹¹⁾ 고질병으로 인한 심장질환이라 추정하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 독살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 권33, 25년 1월 26일 丙申

이는 유상이 두의(痘醫)로 癸亥년에 임금이 두진(痘疹)을 앓았을 적에도 약을 써서 효험을 보였는데, 이제 또 그의 의술을 써서 세자의 두진이 차

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숙종실록 권65, 46년 2월 26일 癸亥

왕세자(王世子)가 홍진(紅疹)을 앓아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였다.

숙종실록 권65, 46년 3월 9일 丙子

세자의 홍진(紅疹)의 환후(患候)가 회복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약청(議藥廳)을 파할 것을 명하였다.

경종실록 권13, 3년 7월 8일 乙酉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중기(腫氣)를 앓는 사람이 꺼리는 바는 노기(怒氣)를 발동하는데 있습니다. 노기가 발동하면 다시 발생하기 매우 쉬우니, 청컨대 ‘정(靜)’자 한 글자를 조심(調攝)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경종실록 권13, 3년 7월 19일 丙申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최석항(崔錫恒)이 말하기를, “병이 좀 나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는 바로 지금 이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중기(腫氣)의 환부(患部)는 바람을 쐬어 상처가 더할까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잠시 완전히 합창(合瘡)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친시(親試)하소서.” 하였다.

16. 영조 (英祖, 1694-1776)

영조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조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재위하였으며 또한 가장 장수하였는데 평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기본적인 양생의 방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주된 질병은 소화기계 질환인 脾胃虛寒, 泄瀉였고 이 밖에 疝氣, 咳嗽, 가래, 眩暈, 眼疾 등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¹¹⁾. 死因으로는 흉에 따르면¹³⁾ 老患으로 인

한 肺炎으로 분류하였고, 이도 老患으로 추정하였다¹¹⁾. 영조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 권50, 37년 9월 6일 壬辰

왕자 연잉군(延昞君) 이금(李昞)이 금중(禁中)에 있었는데, 마마(痲)를 앓았다.

숙종실록 권50, 37년 9월 24일 庚戌

…이때에 왕자(王子)의 마마가 조금 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

영조실록 권43, 13년 4월 18일 丙子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좌담(坐榻)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왼쪽 팔뚝의 담핵(痰核)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켰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70, 25년 10월 29일 甲辰

이때에 성궁(聖躬)의 가려움 증세가 가시지 않아 하여 여러 신하들이 온천(溫泉)의 물을 길어다가 훈세(薰洗)할 것을 청하였다.

17. 정조 (正祖, 1752-1800)

정조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세손시절 당파싸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火氣로 고생을 하였으며, 병세가 심해 혼미한 적도 있었다. 주된 질병은 火病, 腫氣였고 이 밖에 膈滯, 不眠症, 痢疾 등을 앓았으며, 腫氣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적인 정순황후와 단둘이 입방한 상태에서 사망한 정황으로 보아 독살설도 제기되어 있다. 또한 정조는 본인의 약을 직접 처방, 가미할 정도로 의학에 정통한 왕이었으며 사망 전 처치를 어의들과 상의하여 처방하여서 그 과정이 실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의과정이나 腫氣와 관련이 없는 증상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정조의 피부병에 해당하

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조실록 권98, 37년 11월 27일 辛酉

그때에 왕세손이 천연두(天然痘)의 조짐이 있으므로,...

영조실록 권98, 37년 12월 7일 辛未

예조에서 왕세손의 두진(痘疹)의 증세가 평복(平復)되었으므로...

정조실록 권40, 18년 7월 13일 戊戌

상께서 부스럼이 났는데 달포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머리의 부스럼은 하찮은 일이다마는 5월 20일 후부터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며칠 전부터 두통이 점점 심하고 진독이 뺨친데다가 이질 증세까지 있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14일 乙丑

상이 이달 초열흘 전부터 종기가 나 붙이는 약을 계속 올렸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효과가 없으므로 내의원 제조 서용보(徐龍輔)를 편전으로 불러 접견하였다.

...윤교가 아뢰기를, “독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무슨 약을 붙여야겠는가?” 하니, 윤교가 아뢰기를, “근(根)은 없지만 고름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지고(荔枝膏)가 고름을 빨아내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터진 곳이 작으니 다시 침으로 찌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교가 아뢰기를, “이미 고름이 터졌으므로 다시 침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등쪽에 또 종기 비슷한 것이 났는데 지금 거의 수습 일이 되었다. 그리고 옷이 닿는 곳이므로 삼독[麻毒]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 윤교 등에게 진찰해 보도록 명하고 분부하기를, “무슨 약을 붙이는 것이 좋겠으며 위치는 그

리 위험한 곳이 아닌가?” 하니, 윤교가 아뢰기를, “위치는 위험한 데가 아니고 독도 없습니다만, 근이 들어 있으니 고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고, 성일은 아뢰기를, “웅담고(熊膽膏)를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웅담고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하니, 윤교가 아뢰기를, “수도황(水桃黃)은 독을 녹이는 약입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두통이 많이 있을 때 등쪽에서도 열기가 많이 올라오니 이는 다 가슴의 화기 때문이다.” 하였다. 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을 지어 올렸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15일 丙寅

도제조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의관의 말을 들으니 머리와 등쪽에 또 종기 비슷한 증세가 있다 하므로 애타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머리 부분은 대단치 않으나 등쪽은 지금 고름이 잡히려 하고 게다가 열기가 올라와 후끈후끈하다.” 하자, 시수가 아뢰기를, “성상의 몸은 순전히 더위의 증세이므로 양제(涼劑)를 쓰지 않을 수 없으나 소요산(逍遙散)이나 백호탕(白虎湯)은 다 지나치게 찬 염려가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맞는 약이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다. 병을 조리하는 중이라도 잠자기 전에는 망건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를 묶어 쓴 채로 접견하고 있지만 함께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였다.

의관 백성일(白成一)과 정윤교(鄭允僑)에게 진찰해 보도록 명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등쪽은 무슨 약을 붙이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성일이 아뢰기를, “행인고(杏仁膏)에 대황(大黃)과 천화분(天花粉)을 더 넣어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약 힘이 너무 약할 듯하다.” 하니, 윤교가 아뢰기를, “이것도 독을 녹일 수 있으며 너무 독한 약은 선불리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근은 없는가?” 하니, 성일이 아

뢰기를, “거의 다 고름이 잡혔고 근은 없습니다. 가슴의 화기가 내려가면 이 증세도 저절로 쉽게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행인고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백호탕 두 첩을 올렸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16일 丁卯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등이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맨 처음 소요산을 복용한 뒤로 매일 두 번씩 마셔 몇 첩이나 복용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그저 속만 탈 뿐이므로 조보(朝報)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그저께의 두 첩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산은 본디 양제(涼劑)인데 거기에다가 황금(黃芩)과 황련(黃連) 등속을 추가하였으므로 석고(石膏)의 약효보다 못하지는 않으나 어제 백호탕(白虎湯)을 쓰기로 정하여 그것을 마시면 혹시 열을 내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금 마시자마자 곧 열이 오르는 증세가 생겼는데 어깨와 등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이 다 뜨거워 찬 음식을 먹고 나자 비로소 조금 내려간 듯하였고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듯하다.” 하였다.

의관 정윤교에게 등쪽의 종기를 진찰하도록 명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일반적인 증세로는 고름은 적고 피가 많이 나오니 피 속에 열이 많아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약을 쓰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도제조 이시수가 아뢰기를, “여러 의관이 모두 어제 저녁의 열증세는 약힘의 발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니, 백호탕을 다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 사순청량음(四順淸涼飲) 두 첩과 금련차(金蓮茶)를 올린 뒤에 우황고(牛黃膏) 다섯 알을 만들어 올렸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17일 戊辰

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 세 첩을 지어 들여오고

금련차(金蓮茶) 한 첩을 다려 들여오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0일 辛未

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은 중지하고 유분탁리산(乳粉托裏散) 1첩, 삼인전라고(三仁田螺膏) 및 메밀밥을 지어 들여오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1일 壬申

…상이 이르기를, “높이 부어올라 당기고 아파 여전히 고통스럽고, 징후로 말하면 한열(寒熱)이 일정치 않은 것 말고도 정신이 흐려져 꿈을 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고, … 종의(腫醫) 김유제(金有濟)는 아뢰기를, “다른 의원이 전하는 말을 들었더니, 종기 증세는 곧 근종(根腫)이므로 반드시 먼저 근을 녹여야만 통증이 멎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천오(川烏)·황백(黃柏)·적소두(赤小豆)를 똑같은 분량으로 가루를 내어 술에 개어 부친다면 독을 녹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우렁이 고약을 붙인 뒤에 근이 들어 있는 곳이 약간 차도가 있는 것 같으나 조금 더 오래 붙여두어야 약기운이 스며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유분탁리산(乳粉托裏散) 3첩과 메밀밥을 조제하여 들여오고 우방자(牛蒡子)와 감초(甘草)를 달여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2일 癸酉

상이 이르기를, “잡아당기는 통증은 조금 나은 듯하다.” 하고, … 상이 이르기를, “수라를 어찌 챙겨 먹을 수 있겠는가. 겨우 쌀미음을 조금 마셨을 뿐이다.” 하고, 이병정(李秉鼎)이 아뢰기를, “봉해 올린 장고(胖膏)는 드셨습니까?” 하니, … 재길 등이 진찰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참쌀밥을 붙인 뒤에 고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굼았는가?” 하니, 한주가 아뢰기를, “지금은 폭 굼았다고

됩니다.” 하고, 동규는 아뢰기를, “고름은 많이 나왔으나 아직도 꼭 끊지는 않았습시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여러 의관과 마루 밖으로 나가 앉아 앞으로 쓸 처방을 자세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죽엽차(竹葉茶)에 청심환(淸心丸) 한 알을 넣어 달여 들여오고 패모고(貝母膏)를 조제해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 …또 향유조중탕(香薷調中湯) 한 첩과 향귤음(香橘飲) 한 첩을 조제해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3일 甲戌

도제조 이시수가 아뢰기를, “밤 사이에 종기 고름은 계속 순조롭게 흘러 나왔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름이 나오는 곳 이외에 왼쪽과 오른쪽이 당기고 뻣뻣하며 등골뼈 아래쪽에서부터 목 뒤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적(硯滴)만큼이나 크다.” 하자, … 상이 이르기를, “고름이 나왔다고는 하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느끼지 못하겠다. 병이 든 지 오래되어 원기가 차츰 약해지고 있으니…” … 상이 이르기를, “지금도 한창 열증세가 있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번씨(卞氏) 의원의 말에 따라 토끼가죽을 이미 대령하였고 장영 장관(壯營將官) 심인(沈鎭)의 이른바 연기를 쬐는 법도 이미 시험하여 효과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종기를 치료하는 것은 전부 떼땀한 처방을 쓰고 있으며 고름이 흐르고 근이 녹아 차츰 그 효과가 있으니, 그와 같은 잡약(雜藥)은 선불리 시험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두 가지 방법은 과연 소문대로 효과가 있다 하던가?”하자, 윤대(允大)가 아뢰기를, “토끼가죽은 신봉조(申鳳朝)가 효과를 보았고 연기를 쬐는 법은 서정수(徐鼎修)가 또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증세를 보건대 여느 병과 다르며 게다가 한창 무더운 날씨에 약

성이 더운약을 붙이고 고름이 흘러내리니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만, 대체로 腫氣란 빨리 낫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봉합이 너무 빠르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어 한때의 괴로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소서.” 하니, … 찹쌀밥과 우렁이 고약을 조제해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4일 乙亥

상이 이르기를, “어젯밤 같은 무더위 속에 어찌 잠을 붙일 수가 있었는가마는 그젯밤에 비해서는 조금 나왔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어나 앉아 보고 싶어 경들을 불러 집견했지만 이 또한 힘이 든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태는 조금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정오 이후부터는 나오는 고름이 조금 적어졌다.”

심인(沈鎭)이 조제한 연훈방(烟熏方)과 성전고(聖傳膏)를 들여보낼 것을 명하였다. 그 처방은 경면주사(鏡面朱砂)를 사용하였고 성전고는 파두(巴豆) 등 약을 사용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선불리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이때에 와서는 모든 약이 효과가 없어 상이 연훈법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하므로 마침내 가져다가 써보기에 이른 것이다.

약원 제신을 불러 집견하였다. 이시수 등이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결에 있는 작은 종기가 한층 더 당기고 아프다.”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결에 있는 종기가 크기는 작더라도 독기는 더 많기 때문에 아픈 증세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금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열기가 또 올라온다.”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의관의 말을 들으면 열증세가 오르내리는 것은 언제나 취침한 뒤에 그러하였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하였다.

성전고(聖傳膏)와 연훈방(烟熏方)을 조제해 들어

을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5일 丙子

상이 이르기를, “심인(沈鎭)과 정윤교(鄭允僑)를 들어오게 하라.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요자리에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되가 넘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하므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하였다.

제신이 진찰한 뒤에 아뢰기를, “피고름이 이처럼 많이 나왔으니 근이 이미 다 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의 반갑고 다행스러운 마음은 무엇이랴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원기를 보충하는 면에 한층 더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어고(鮒魚膏)를 본원(本院)에서 봉하여 올리겠습니다. 잠자리도 전에 비해 편안하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밤에 비하면 조금 나았다.” 하자,...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어깨죽지 위의 당기고 아픈 또 다른 종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잘 모르겠다고 분부하시니 통증이 가신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간에 무엇을 드신 것은 있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직 먹은 것이 없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피고름이 완전히 나온 뒤에는 구미도 반드시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성상의 병세가 이미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니 그야 물론 머지않아 쾌차하실 것입니다만 이러한 때의 조리는 한층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날것과 찬 것을 드신다거나 찬바람을 쏘이는 일을 깊이 경계하셔야 하며, 신경을 너무 지나치게 쓰는 것은 이와 같은 종기에 더욱 해로운 법이니 바라건대 더욱더 유의하시어 모든 일에 반드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도록 힘쓰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람을 쐬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처럼 방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

은 도리어 너무 답답하다.” 하자, 윤대(允大)가 아뢰기를, “사실 너무 답답하실 염려가 있으니 바깥 창문만 닫고 방문은 가끔 잠시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조금 낮고 어깨죽지의 부은 곳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긴 하나 주변의 작은 종기들이 한덩어리를 이루어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 같아 잡아당기는 증세가 없지 않다. 피고름이 많이 나온 뒤라서 뱃속이 필시 허약할 것인데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상한 일이다.” 하니, 이시수가 아뢰기를, “열기는 아직도 있습니까?” 하고, 상이 이르기를, “열기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이것은 특별한 증상이다.”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비록 두 가지 증상이긴 하나 종기 증상도 열종(熱腫)으로 인해 생긴 것이니 종기가 낫는다면 열기도 차츰 내려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름이 많이 나와 버렸는데 오히려 당기는 증세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심인(沈鎭)이 아뢰기를, “이미 흘러나온 피고름이 많아 지금 남은 것은 약간의 찌꺼기뿐인데 그것도 차츰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종기 증상은 이미 나아가고 있으나 남은 기운이 어찌 당장 없어지겠습니까.”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신들이 조금 전 연석에서 물러나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피고름은 아무리 원기가 강장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많은 피를 흘리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성상의 건강을 살펴볼 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약의 힘이 비록 독하더라도 원기가 튼튼하지 않다면 어찌 이처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열을 다스리는 약을 크게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상이 이르기를, “소요산(逍遙散)에 사물(四物)을 더 넣는다면 합당한 약이 될 것 같다. 경들은 물

러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의관이 전한 분부를 들어보니 그 말씀이 과연 지당하십니다. 피고름이 것처럼 많이 나온 것은 순전히 다 끓아서 터진 것이 아니라 더운 피가 위로 올라와 그것이 터져서 따라 나온 것 같습니다. 이로 볼 때 땀속에 열기가 많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너무 차가운 약은 감히 논의할 수 없으나 피를 식히고 맑게 하는 약으로 서서히 조절하는 것이 관찰했습니다. 다시 의관들과 심분 토론하고 내일 아침 진찰을 마친 뒤에 탕약을 의논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침 이후 무엇을 드셨으며 또 몇 차례나 드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식전에는 조금 나온 것 같았으나 오후에는 구미가 완전히 변해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순전히 열증세인데 요즘은 입안이 마르는 일이 없으므로 찻물도 찾아 마시지 않으니 이 또한 이상하다.” 하였다.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한 알과 댓잎을 달인 물에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한 알을 넣어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6일 丁丑

상이 이르기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조금 낮지만 통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어젯밤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수라는 완전하게 다 맛보지 못하고 원미(元味)만 조금 먹었다.” 하고, 심연·정운교에게 약을 붙일 것을 명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신은 눈이 어두워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부어오른 곳이 어제보다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연훈방은 날이 저물 무렵에 시험해 보고 싶다.” 하자, 시수가 아뢰기를, “열이 조금 식은 감이 있으니 탕약은 우선 중지하고 다시 의논하여 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좌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날이 저물었는데 그동안에 음식을 드신 일은 있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흰도라지 미음을 마시긴 했으나 많이 마시지 못했다.” 하고, 이시수가 아뢰기를, “신은 아침 연석에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곧 연훈방을 써보아야겠다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즉시 물러나와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제 이전은 종기가 부어올라 당기고 아픈 정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찰할 때는 종기를 다스리는 일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종기가 거의 나아가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한때 가슴의 화기처럼 보입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로 보더라도 침식이 편하지 않으면 변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물(四物) 가운데 숙호(熟苧)는 건조(乾苧)로 대체하고 육군자(六君子) 가운데 반하(半夏)를 감하고 팔물탕(八物湯) 가운데 진피(陳皮) 한 가지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혈을 강하게 보충하는 약이 아니라 사실 평범하고 떳떳한 왕도(王道)의 약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과 같은 변열증으로 어찌 그와 같은 약을 복용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이 증세는 허번(虛煩) 이지 실열(實熱)은 아닐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생맥산이나 경옥고를 막론하고 내 생각에는 복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본다.” 하고,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열기운이 아직도 내리지 않았다.”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조금 전 연훈방을 시험해본 뒤에 심연과 여러 의관이 하는 말은 모두 종기 부위가 어제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며칠 가지 않아 나머지 독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경사롭고 다행스러웠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탕약의 일로 경들이 누누이 애써 간청하니 그 또한 계속 거절하기 어렵다. 생

맥산을 먹어보긴 해야겠으나 우선 경옥고를 조금 시험하고 싶다.” 하니, … 상이 이르기를, “그전에는 잠을 자고난 뒤에 열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연훈방은 아직도 한 차례가 남았으나 지금 해가 이미 저물었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오늘은 두 번만 시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기어코 정해진 수효를 다 채우고 싶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경옥고를 복용하신 뒤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이제는 온보(溫補)할 약을 당장 의논해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팔물탕(八物湯)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전고와 연훈방을 조제해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 경옥고를 들여보냈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7일 戊寅

…상이 이르기를, “어젯밤을 지낸 일은 누누이 다 말하기 어렵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지금 은 탕약을 의논해 정하는 일이 한시가 급하니, 수 의(首醫) 이하로 하여금 맥을 진찰해 보게 하소서.” 하였다.

강명길(康命吉)·유광익(柳光翼)·이경배(李敬培) 등이 진맥한 뒤에 아뢰기를, “열기는 조금 없어진 듯하나 좌우 삼부(三部)의 도수는 모두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고, … 시수가 아뢰기를, “어제 심연의 말을 들으니 중기 아래쪽이 약간 단단한 것 같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것 같긴 하나 자세히 잘 모르겠다.” 하고, 좌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당기고 아픈 곳은 완전히 나았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나왔다. 연훈법을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는가?” 하자, 시수가 아뢰기를, “탕약을 복용하신 뒤에까지 우선 기다렸다가 증세를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가미팔물탕 한 첩을 달여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 조금 뒤에 시수가 또 아뢰기를, “신들이 들어왔

습니다. 날씨가 이처럼 무더운데 너무 오랫동안 주무시니 정신이 흐려지신 감이 있는 듯합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소서.” 하고, 조금 뒤에 또 아뢰기를, “탕약을 달여 들여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 잦은 것 같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정오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드시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더위 때문에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 경들은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팔물탕을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특별히 다른 증세는 없다.” 하고, 시수가 아뢰기를, “연훈방을 다시 시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자, 시수가 아뢰기를, “연훈방은 중기에 맞는 처방이긴 하나 정신이 혼미하신 이때 연기가 혹시 방안에 피치면 정신에 해로울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유광익·심연 등은 아뢰기를, “연훈방은 우선 중지하고 천천히 상태를 보아가며 시험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시수 등이 또 청했으나 상은 계속 잠이 든 것 같았다. 한참 뒤에 시수가 아뢰기를, “탕약이라서 쉽게 식으니 지금 드십시오.” 하니, 상이 비로소 일어나 앉아 마셨다.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28일 己卯

… 상이 이르기를, “누각(漏刻)이 멎은 뒤에 잠을 조금 잤다.” 하고, 이시수가 아뢰기를, “밤 사이에 무엇을 드신 것이 있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혀 먹은 것이 없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인삼차를 지금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인삼차를 끓여 들여온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하니, 상이 마셨다.

시수가 아뢰기를, “일찌감치 진맥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방의 의관 김기순(金衿淳)과 강취현(姜最顯)도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세상에 병을 제대로 아는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불러들여라.” 하여, 기순과 최현이 들어왔다. 강명길(康命吉) 등이 진맥한 뒤에 아뢰기를, “원기 부족하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자, … …이때 상의 병세가 이미 위독한 상황에 이르러 만수가 홍욱호(洪旭浩)와 강최현(姜最顯)을 불러 진맥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

… 이에 시수가 옥호 등을 불러 들어 앞에 나가 진맥하게 하였다. 진맥한 뒤에 명운이 말하기를, “맥도(脈度)를 감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옥호와 최현은 다 아무말도 없었다. 시수의 뜻에 따라 탐교(楊敎)를 쓰기를, “인삼 5돈종과 좁쌀 미음을 먹어야겠으니 계속 끓여 들여오라.” 하고, 또 탐교를 쓰기를, “청심원(淸心元) 두 알을 먹어야겠으니 들여오라.” 하고, 또 탐교를 쓰기를, “소합원(蘇合元) 다섯 알을 먹어야겠으니 생강을 끓인 물에 타서 들여오라.” 하였다.

좌의정 심환지 등이 앞으로 나가 큰소리로 신들이 대령하였다고 아뢰었으나 상이 대답이 없자, 인삼차와 청심원·소합원을 계속 올려드렸다. 왕대비전이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분부하기를, “이번 주상의 병세는 선조(先朝) 병술년의 증세와 비슷하오. 그 당시 드셨던 탕약을 자세히 상고하여 써야 할 일이나 그때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으니 의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올려드리게 하시오.” 하자, 도제조 이시수가 명길로 하여금 성향정기산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

부제조 조운대(曹允大)가 성향정기산을 받들고 들어오자 시수가 받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탕약을 떠 두세 손가락을 입안에 넣었는데 넘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토해내기도 하였다. 다시 또 인삼차와 청심원을 계속 올려드렸으나 상은 마시지 못했다. 시수가 또 명길에게 진맥하게 하였는데 명길이 진맥을 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말하기를, “맥도로 보아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하자, 제신이 모두 어찌할 줄 모르며 둘러앉아 소리쳐 울었다.

18. 순조 (純祖, 1790-1834)

순조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재위시절에도 질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주된 질병은 입맛이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소화기계 질환인 脾胃虛損이었고 이 밖에 浮氣, 腫氣, 便秘, 頭痛, 暑病 등을 앓았음을 알 수 있으며⁵⁾, 腫氣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실록이나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³⁾. 순조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조실록 권3, 1년 11월 19일 壬辰

오천근 등이 아뢰기를, “풍열(風熱)의 빌미로 인하여 홍역 같으나 홍역은 아닌데, 감히 어느 날부터 처음 발진(發疹)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저께부터 처음으로 발진하였는데, 몸에도 많이 있으며, 혹은 크고 혹은 작은 것이 다리·발 부분에 많이 발진하였다.” 하고, 금은화(金銀花) 두 돈(錢)과 산사육(山查肉) 한 돈종으로 차[茶]를 만들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권3, 1년 11월 20일 癸巳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의관 이유감(李惟鑑)이 아뢰기를, “맥박의 증후(症候)가 어제와 비교하여 맥이 뛰는 수가 조금 더하며, 홍역의 과립(顆粒)이 어제와 비교하여 불그스름한 윤기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리 부분에도 발진한 곳이 있는데, 많고 적은 것은 등의 부위와 같은 듯하다.” 하고,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에다 금은화(金銀花)와 산사육(山查肉)을 가미하여 달이 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권3, 1년 11월 22일 乙未

홍면검이 아뢰기를, “수두(水痘)의 증세가 쾌히 수렴(收斂)하는 경사가 있습니다” 하고, 김시중은

말하기를, “제절(諸節)이 한결같이 평순(平順)해지니
오늘은 탕제(湯劑)와 다음(茶飲)을 만들어 올릴 필
요가 없습니다.” 하니, 이어서 약원에서 윤직(輪直)
하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권17, 14년 11월 23일 庚戌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이날 중기가 저절로 풀아
서 터졌는데, 고름이 걸쭉했다. 진자병(榛子餅)을
붙였다.

순조실록 권34, 34년 11월 1일 壬戌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상후(上候)가
중환(腫患) 때문에 흠녕(欠寧)하므로 부첩(傅貼)할
교맥병(蕎麥餅)을 만들어 들이도록 명하였다.

순조실록 권34, 34년 11월 6일 丁卯

약원에서 구두로 아뢰를, “신들이 입진한 의관
(醫官)의 말을 들으니, 응취(凝聚)된 곳에 아픈 증
세가 조금 감해지고 침수(寢睡)의 절차(節次)도 전
에 비하여 약간 편하시다고 합니다마는, 모든 면에
아직도 쾌복(快復)이 지연(遲延)되어 정섭(靜攝)을
하신 지 이미 많은 날이 되었으므로, 삼가 우려(憂
慮)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순조실록 권34, 34년 11월 8일 己巳

도제조 홍석주가 말하기를, “다리 부분의 운용
(運用)이 점점 편리(便利)하십니까?” 하니, 임금
이르기를 “편리하지 않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34, 34년 11월 10일 辛未

약원에서 입진을 청하니, 증세를 진찰하는 것을
대내(大內)에서 할 것을 명하였다. 가미군자탕의
전방 중에서 반하(半夏)를 빼고 육계(肉桂) 한 돈을
가(加)하였으며, 인삼(人蔘) 한 돈을 가하고 백출(白
朮) 5푼을 가하여 들었다. 또 삼령음을 정지(停止)
하고 가감 양위탕(加減養胃湯)을 다려서 들이었다.

순조실록 권34, 34년 11월 13일 甲戌

강굴다(薑橘茶)에 강즙(薑汁) 두 숟가락을 가(加)
하여 올렸다.

1냥종의 인삼과 속미음(粟米飲)을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또 1냥 종의 인삼과 속미음을 다시 다
려 들일 것을 명하고, 또 강굴다에 사당(砂糖) 가
루를 넣어 올리라고 명하였으며, 또 시임 대신·원
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담강다(淡薑茶)에 청심원(淸心元) 반환(半丸)과 소
합원(蘇合元) 2환을 조화시켜 넣어서 올리라고 명
하고, 또 길패음(吉貝飲)을 달여 올리라고 명하였으
며, 또 2냥종의 인삼과 속미음을 다시 달여 올리라
고 명하였다. 또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보고 또 2냥종의 인삼과 속미음을 다시 달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해시(亥時)에 임금이 경희궁(慶熙宮)의 회상전(會
祥殿)에서 승하하였다.

19. 헌종 (憲宗, 1827-1849)

헌종의 질병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찾아보면 14년 6개월 동안의 재위시절동안 痘候,
滯氣, 浮氣, 脹滿 등으로 고생한 기록이 있으며 23
세의 어린나이에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자세한 증
상의 기록이 없다⁵⁾. 헌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
용은 아래와 같다.

헌종실록 권10, 9년 9월 27일 丙申

임금이 두후(痘候)가 있으므로, 약원(藥院)에서
중희당(重熙堂)에 입진(入診)하였다.

20. 순종 (純宗, 1874-1926)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순종의 질병에 대한 [實錄]의 기록을 찾아
보면 다리가 불편한 증상, 滯氣가 주로 있었고 齒
痛으로 인한 치과치료를 자주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이 밖에 驚動, 腫氣, 便秘, 浮腫 등을 앓았으며⁵⁾, 세자 시절 독이든 커피를 마시고 인지능력이 떨어졌다¹⁴⁾. 순종의 피부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종실록 권11, 11년 6월 20일 辛卯

전교하기를, “원자궁(元子宮)의 수두(水痘)가 순조롭게 회복되었으니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고종실록 권16, 16년 12월 12일 己卯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신들이 입진(入診)한 의관(醫官)이 전하는 말을 삼가 들으니, 세자궁(世子宮)의 위중하던 천연두 증세가 나아지는 징조를 보이고 여러 가지 증세가 순조롭다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세 제조(提調)가 직숙(直宿)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권16, 16년 12월 22일 庚申

여러 대신(大臣)에게 들어가 세자궁(世子宮)을 보라고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발진했던 것이 반쯤 가라앉았고 정신과 눈빛 및 목소리가 모두 좋으니, 탕약은 다시 의논해서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제부터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몇 군데는 아주 붉고 윤기가 돈다.” 하였다.

순종실록부록 권8, 10년 4월 23일 癸卯

의관(醫官) 가미오카 가즈유키 (神岡一亨) 와 측탁의사 안상호(安商浩)가 입진(入診)하였다. 다리의 조그만 腫氣 때문이었다.

Ⅲ. 結論 및 考察

醫史學은 의학과 의료기술 발전의 자취 그리고

의학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정신적 환경과 각 시대 상호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또한 韓醫學史도 오늘날의 한의학과 과거 의학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현재의 한의학이 어떻게 형성 되었음을 규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욱 발전된 한의학을 창조하는 초석을 놓는 작업을 한다는 것에 韓醫學史 연구의 참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2,4)}.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기타 모든 문화를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일반역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의학사의 기초연구자료로도 매우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값진 기록물이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매우 상세하며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군왕 개인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인간적인 모든 면을 포함한 세세한 질병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 그 시대 의학의 좌표와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4,15)}.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은 모두 27위가 되는데, 평균 수명은 48.0세이며 환갑을 넘긴 사람은 6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근대시대에 평균수명이 매우 낮았던 이유는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나, 대부분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오른 조선시대 왕들이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과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50세를 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한 원인으로 김³⁾은 잘못된 보건개념으로 종기와 같은 감염증이 자주 발병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주색을 즐긴 궁중생활의 결함과 야사에서 주장하는 독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피부를 한의학에서는 腠理 또는 玄府라고도 하는데 인체는 이를 통하여 피부호흡을 하며 모든 인체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氣의 출입처이며 氣液, 血脈, 榮衛, 精神 운행의 중요한 조절기관이 된다.

피부호흡은 皮肉脈筋骨을 자양하고 風寒暑濕燥火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피부병의 주된 원인은 피부호흡의 不利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 피부병의 주된 병인은 주로 血熱로, 《東醫寶鑑》에도 “아픈 것, 가려운 것, 瘡瘍, 癰腫, 疽, 疹, 癩氣, 結核 같이 심하게 막힌 것은 모두 火熱에 속하다.” 하였으며 또한 “癰疽는 단지 血에 熱이 지나친 것이다.”라 하였다. 그 病因은 외사의 침입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 인체 내부의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인 피부병이나 瘡瘍은 모두 피부호흡이 안 좋아 발생한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한의학적으로 외사의 침입은 虛邪賊風의 개념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다^{17,18)}.

《朝鮮王朝實錄》에만 400여건의 腫氣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단일 질병으로 가장 많이 등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 중에 腫氣로 고생하지 않은 왕이 거의 없으니 하물며 영양 상태나 위생상태가 왕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던 백성들의 경우 그 유병률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20,21)}.

본 논문에서는 實錄에 기록된 피부병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腫氣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질병사에 있어서 腫氣의 유병율을 추산할 자료는 없으나 《素問異法方宜論》에는 “동방의 지역은 물고기과 소금의 땅으로 바닷가, 물을 연하고 있어 그 병이 癰瘍이라²²⁾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방에 腫氣가 많이 발생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고로 瘡腫이 많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①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기후와 식이습관이 腫氣 발생과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腫氣가 중국에 비해 많았음을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양의학적으로 털집 주위 조직 깊숙이 발생한

급성 화농성 염증을 종기(furuncle)라 하며, 두 개의 이상의 종기가 융합되어 보다 크고, 깊게 발생한 심한 형태의 화농성 염증은 큰종기(carbuncle)라 한다. 종기와 큰종기는 깊은 농포모양염에 해당한다. 털집을 중심으로 단단하고 통증과 압통이 있는 홍색 결절이 발생하여, 심해지면 오한, 발열 등의 전신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절의 가운데가 부드러워지며 얇아지다가 완전히 끊으면 고름 및 괴사 조직이 배출되고 궤양과 흉을 남기기도 한다. 동시에 여러 개의 종기, 큰 종기가 생기거나,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종기증(furunculosis)이라 한다.

검사법으로는 고름의 Gram 염색과 세균배양 검사로 확진하며,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서 항생제감수성 검사도 필요하다. 초기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더운 찜질을 하여 끓는 것을 촉진시켜 단단한 결절이 말랑말랑해지면 절개하여 고름을 짜내고 항생제를 투여한다. 외이도, 코, 콧속, 윗입술 등의 특수한 부위에 발생한 종기는 절개하지 않는다. 더운 생리식염수로 찜질하고 항생제 연고와 경구 항생제 치료를 겸하며 굵더라도 절개하지 말고 자연 배출되도록 한다²³⁾.

한의학적인 분류에 따르면 腫氣는 瘡瘍類로서 그중 癰, 疽, 癤, 發, 疔, 流注, 走黃, 內陷, 流痰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瘡瘍은 각종 病因이 인체에 침입 후 발생하는 體表의 화농성 질환이다. 外感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처음에는 火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紅腫熱痛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체로 증상이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內傷에 의한 경우에 臟腑不調로 발생하여 膿腫이 형성되고 이때 惡治하게 되면 正氣가 약해지고 瘡毒이 심해져 走黃과 內陷의 위급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²⁴⁾.

역대 조선왕들이 호소하였던 피부 질환을 살펴보면 腫氣 이 외에 痔症, 痒處, 부스럼과 濕瘡, 面

① 문종실록 2년 5월 甲辰

瘡으로 표현된 瘡, 赤暈으로 인한 가려움증, 發疹, 두드러기, 눈다래끼, 核患, 痘症, 痰核, 紅疹, 水痘 등이 있다. 종기를 포함한 피부병은 역대 왕들의 고질적인 병으로 많이 나오는데,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등의 경우에는 腫氣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되어 나온다. 한의학 서적에서도 많은 부분 종기나 부스럼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며, 또한 이러한 피부 질환에 관련한 전문의서가 별도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였다. 이로 보건대 종기나 부스럼을 포함한 피부질환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았었고 치료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⁹⁾.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역대 왕들의 피부병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 역대 27대 왕 가운데 총 19명, 太宗, 世宗, 文宗, 睿宗, 成宗, 燕山君, 中宗, 仁宗, 光海君,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純宗은 피부병을 앓았다.
2. 조선왕조의 왕들이 앓았던 피부병은 腫氣가 단일 질병으로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 痔症, 痒處, 瘡濕, 瘡, 面瘡, 赤暈稍癢, 發疹, 癩疹, 偷鍼瘡, 核患, 痘症, 痰核, 紅疹, 水痘 등이 있다.
3.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봤을 때 피부병을 고질병으로 겪었던 왕은 文宗, 顯宗, 肅宗으로 재위기간동안 자주 腫氣로 고생을 하였다.
4.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봤을 때 피부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경우는 文宗, 成宗, 孝宗, 正祖, 純祖 이며 모두 腫氣로 인해서 사망하였다.

I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9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2009AA117)

Table 2. Kings' skin diseases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임금	피부병
1. 太祖	없음
2. 定宗	없음
3. 太宗	腫氣
4. 世宗	腫氣
5. 文宗	腫氣, 痔症
6. 端宗	없음
7. 世祖	없음(野史-癩病)
8. 睿宗	痒處
9. 成宗	腫氣, 痔疾, 瘡
10. 燕山君	腫氣, 面瘡, 赤暈稍癢
11. 中宗	腫氣
12. 仁宗	發疹
13. 明宗	없음
14. 宣祖	없음
15. 光海君	腫氣
16. 仁祖	癩疹
17. 孝宗	腫氣
18. 顯宗	搔癢成瘡, 腫氣, 偷鍼瘡, 核患, 濕瘡
19. 肅宗	痘症, 臍中痰核, 瘡, 腫氣
20. 景宗	痘疹, 紅疹, 腫氣
21. 英祖	痘症, 痰核, 癢
22. 正祖	痘症, 瘡, 腫氣
23. 純祖	紅疫, 腫氣
24. 憲宗	痘疹
25. 哲宗	없음
26. 高宗	없음
27. 純宗	水痘, 痘症, 腫氣

參考文獻

1. E.H.Carr,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1997:50.
2. 김두중. 동서의학사대강 서론. 서울:탐구당. 1979:3.
3. 이해웅. 조선시대 명종, 선조, 광해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한의학석사논문.

- 2002.
4. 윤한룡, 윤창렬.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조선중기제왕들의 질병과 사인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01;14(1):125-51.
 5.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박사논문. 2005.
 6. 김훈. 조선전기 군왕의 질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7. 김훈. 조선시대 효종의 질병 및 사인에 관한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2004;17(2):129-44.
 8. 김훈. 소현세자의 사인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210-27.
 9. 김훈. 조선시대 임금들의 온천욕과 질병. 한국 의사학회지. 2001;14(1):61-78.
 10. 김병조. 중종대왕의 병상일지에 대한 고찰. 대한한학회지. 1988;9(2):51-8.
 11. 이해웅, 김훈.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과 치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228-54.
 12. 김종우, 현경철, 황의안. 화병의 기원에 관한 고찰-《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10(1):205-16.
 13.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991;14(1):35-46.
 14. 이덕일. 조선왕 독살사건2. 서울:다산북스. 2009.
 15. 유초하. 한국사상사의 인식. 서울:한길사. 1994:18.
 16. 이해웅, 김훈. 조선시대 선조의 질병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15(2):101-19.
 17. 허준. 동의보감. 경남:동의보감출판사. 2005:1533.
 18. 정행규. 피부병의 형상의학적 치료. 형상의학회논문집. 2003;14(1):251.
 19. 박성하, 구교성, 강경화, 이용태. 창양의 방풍통성산 치험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226-33.
 20. 허정. 조선조 역대 왕의 질병과 사망. 에세이 의료한국사. 서울:한울. 1992:129-37.
 21.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그 발전배경 및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1). 의사학. 1997;6(2):205-15.
 2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8.
 2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편. 개정판 의대생을 위한 피부과학. 서울:고려의학. 2006:115-6.
 24. 전국 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피부외과학. 부산:선우. 2007:139-42.